



태풍 에위니아가 덮친 10일 광주·전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보성군 벌교읍의 비닐하우스들이 폭우에 잠겨 있다. /내영주기자 mjna@

“韓-美 FTA, 쌀 양허 안된다”

〈개방허용〉

타결엔 농업생산 年 2조3천억원 감소

전남 피해 극심...“보호대책 먼저 세워야”

10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시작되자 각계에서 정부가 우리나라 농업을 지킬 실질적인 대책부터 먼저 세울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양국은 이번에 농산물과 섬유를 포함한 분야별 양허(개방허용) 여부 및 관세 감축의 정도와 기간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다. 이에 따라 농

도인 전남도와 정치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한 우리 농업을 지탱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이 급선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포함, 전남도가 전체 농업생산액을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농업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박사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고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밀 제외) 등의 관세를 50% 감축할 경우 전국 농업생산액은 연간 2조 2천8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기준으로 한미 FTA로 인한 전남도의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간 4천5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권 박사는 또 한미 FTA가 타결되면 농업 분야에서만 전국적으로 연간 14만 2천 816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전체 농업인구의 14%를 점유하고 있는 전남도에서는 2만여 명의 농민이 생업기반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는 한미 FTA가 사전대책 없이 일정에 따라 추진될 경우 농도인 전남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축산물·과일 등 민감품목은 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양국간 교역가능성, 경쟁력, 피

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축산물과 과일, 가공식품 등은 최소 15년 이상 유예기간 확보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도는 국제협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SG)와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 18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쌀은 우리 농업의 기반이며 주식으로서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품목이고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는 한미 FTA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동부권 ‘물바다’

태풍 ‘에위니아’ 강타...농경지 7천여ha 침수 등 피해 속출

전국서 8명 사망·실종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덮친 10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농작물 침수, 정전, 산사태, 해상사고가 잇따르고 일부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전남도 재해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공공시설물 21개소가 파손돼 5억7천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농작물 피해 등이 거의 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진도에 상륙한 태풍은 함평을 거쳐 오후 5시 충남 서천지역을 지나 시속 35km의 속도로 북상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광주·전남지역 태풍주의보를 해제했다. (관련기사 7면)

경남 함양에서는 60대 할머니가 불어난 논물에 휩쓸려 숨지는 등 지난 8일부터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10일 오후 3시 현재 전국에서 모두 8명이 사망·실종됐다.

▲농작물·시설피해 속출=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포함된 여수를 중심으로 정전, 산사태, 해상사고 등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곡성군 곡

■시·군별 강수량 (10일 오후 5시 현재)

시·군	강수량 (mm)	시·군	강수량 (mm)
광주	34.8	보성	171.5
목포	19.5	화순	102.3
여수	162.7	장흥	137.0
순천	162.6	강진	106.0
나주	50.8	해남	54.4
광양	191.5	영암	44.3
담양	44.5	무안	10.9
곡성	101.0	함평	14.8
구례	137.5	영광	4.5
고흥	108.5	장성	23.0

성읍 월봉리 도림사 뒷산이 폭우에 무너져 내리면서 사찰 내부를 덮쳐 일부가 훼손됐다.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모두 7천여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고흥 포두면 등 16개 읍·면에서 3천930여ha가 침수된 것을 비롯, 순천 해평면과 순천말 일대 1천400여ha, 여수 400여ha, 광양 300여ha, 강진 380여ha 등이 침수 피해를 당했다. 또 비닐하우스 피해도 잇따라 순천지역에서 비닐하우스 5동 1.3ha 등이 전파 또는 반파됐다.

▲해상사고=10일 오전 9시께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서쪽 12마일 해상에서 운항중이던 1만600t급 싱가포르 선적 ‘EAS 라인 티안진’호에서 컨테이너 100여 개가 강풍에 밀려 바

다로 추락했다. 또 10시40분께에는 소리도 남쪽 해상에서도 1만7천t급 싱가포르 선적 ‘알하이 213’호에서 펄프를 가득 실은 컨테이너 11개가 떨어졌다.

▲정전도 잇따라=장성군 백양사와 인근 상가 10여 가구는 2시간 동안 정전됐으며 여수시청 일대도 정전돼 재난상황실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교통마비=광주공항에서는 오전 7시30분 출발 예정이던 광주발 서울행 아시아나 항공 8700편을 비롯해 광주, 김포, 제주를 오가는 21편의 모든 비행기가 멈춰섰고 여수와 목포 공항에서도 14편 항공기 운항이 전면 취소됐다. 목포와 여수, 완도 등 전남 섬과 육지를 잇는 47개 노선 배로도 전면 통제됐다. 또 오전 11시15분께 광양~육곡간 약 50m의 선로가 유실돼 경전선 무궁화호 열차 1551호와 1552호의 운행이 중단됐다.

▲곳곳 임시휴교=전남도내 70개 초·중·고·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10일 임시휴교조치했다. 또 16개 학교 시설물 등 모두 3억3천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독일 월드컵 이탈리아 우승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는 10일 새벽 (이하 한국시간)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 결승에서 전·후반과 연장전을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레 블뢰’ 프랑스를 5-3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1982년 스페인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정상에 오른 이탈리아는 1934년, 1938년, 1982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22·23면)

이날 경기에서 프랑스 지네딘 지단의 선제골과 이탈리아의 마르코 마테라치의 동점골을 주고 받은 두 팀은 연장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지만 서로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연장 후반 ‘레 블뢰’의 사령관 지네딘 지단의 퇴장으로 불안감에 휩싸인 프랑스는 기세가 오른 이탈리아에 무릎을 꿇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탈리아 주장 피비오 칸나바로가 10일 우승컵을 들고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월드컵 스코어 보드 (결승)
이탈리아 1 : 1 프랑스
(승부차기) 5 : 3

盧대통령, FTA 대응 국내팀 구성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미(對美) 협상팀과는 별도로 한미 FTA 대응 국내팀을 구성, 반대 여론을 비롯한 각종 국내 의견을 수렴, 홍보하고 문제점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한미 FTA 협상 추진을 위해 한미 협상에 임하고 있는 직접 협상팀 외에 별도의 국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한미 FTA 대응 국내팀의 역할과 관련, “한미 FTA와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대 의견, 쟁점 등 각종 의견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점검하여 한미 FTA 협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

을 비롯, 김중훈 협상수석대표 등 대미 협상팀은 앞으로 구체적 협상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국내팀은 TV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하며 국내 여론을 총괄하며 홍보 대책을 체계적으로 챙기는 역할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함께 한 한명숙 총리로부터 국내 대책을 전달, 총괄하는 국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받고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포항대학 입학 50년 기념 조형물

경남의 대표 명문대학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 설립연도 1956년 4월 1일 ▶ 1,100여명 200여명

사제로 운영하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http://www.chny.ac.kr

▶ 설립연도 1988년 5월 1일 ▶ 1,000명 360-3000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Love is the best Medicine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관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맡아줍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안과 일반의약품

◆ 카탈라 점안액
안과 질환의 원인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카탈라 점안액은 눈의 건조함을 완화하고 눈의 염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신도콜 점안액
안과 질환의 원인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도콜 점안액은 눈의 건조함을 완화하고 눈의 염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비어볼 점안액
안과 질환의 원인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어볼 점안액은 눈의 건조함을 완화하고 눈의 염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제약품 판매처
090-022-2200 (주선 4대) 정성스레 그대 사랑을

국제약품이 키우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